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7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1월 26일 (제726호)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봉우칼럼

아멘!

작년 말, 우리 장로님들이 나의 묵회 29년 기념파티를 열어줬다. 그 자리에서 나는 요한 웨슬러의 말을 전했다.

“요한 웨슬러가 사업가들을 모아놓고 ‘돈 많이 버십시오.’라고 말했다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큰소리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다시 웨슬러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많이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러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멘한 그 사람은 나중에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는데요.”

내 말에 우리 장로들은 한 바탕 크게 웃었다. 나는 우리 장로들은 분명히 모두 ‘아멘’ 하리라 믿는다. 또한 내 말에 큰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합당할 때만 ‘아멘’ 한다. 이해되지 않을 때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멘’이다. 그레놓고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멘’ 했는가? ‘아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나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후1:18). 예수 그리스도가 받들기 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아멘’의 전형(典型)이다. 우리의 아멘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나는 주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무조건 ‘아멘’ 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버거울 때도, 불가능해보일 때도... 그랬더니 오늘날의 나로 축복하셨다.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복 받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랑이, 그에게서 축복이 쏟아질 것이다.

이 나라를 건지러왔다

베네수엘라(Venezuela)! 이 나라가 심상치 않다. 차베스(Chavez)의 철권통치 14년이 그의 사망으로 종식되었다곤 하지만, 그가 베네수엘라에 끼친 영향은 실로 커서 단순히 외부세계에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듯하다. 세계 제일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부국이지만, 무지몽매하여 미국의 노예처럼 살던 그들을 각성시키고, 초등학교부터 집중투자를 통해 누구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고 한다. 그에 대한 외부세계의 평가는 박할지 모르나 자국 내의 평가는 실로 180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의 가톨릭 적대정책은 상대적으

의 가르시아(Garcia) 주지사는 자신의 업무조차 폐하고 공항에 나와 목사님을 영접했다. 또한 집회 및 숙식, 경호 등 일체를 책임지고 지원해주었다(관련기사 4면). 루이스 목사가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셈인데, 이 또한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다. 가는 곳마다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력 있는 자들이 돕게 해달라는 목사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한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함을 배운다.

현지에서 합류한 통역관 이 선교사는 새해 성도 5천명을 목표로 뒤편에서 십일

하고 있었다. 루이스 목사는 공항VIP실에서 목사님을 영접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묵회자들이 연합하여 이번 집회를 준비했고,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첫날 집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바르가스 주의 주도(州都)인 라과이라(La Guaira) 시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입추의 여지없이 인파로 가득 찼다. 목사님은 집회를 위해 하루 8시간을 기도하시며 2014년 첫 집회에 혼신을 다하셨다. 목사님이 단에 서시는 순간, 이미 전쟁은 끝나있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



베네수엘라 바르가스(Vargas) 집회-광경

로 개신교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다양한 평가가 있겠으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의 영적 부흥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듯하다. 특히 지난 2009년 10월, 10여명의 일행과 함께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루이스(Luis) 목사는 “나라를 건지러 왔다.”고 목사님께 요청했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국가를 사랑하는 그의 기도가 여실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번 집회는 베네수엘라의 23개 주(州) 가운데 수도 카라카스에 인접한 바르가스(Vargas)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루이스 목사와 함께 공항 VIP실로 우리를 영접한 바르가스 주

조와 함께 감사헌금을 들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

또한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정정의 변화로 염려됐었던 에드가르(Edgar) 중앙은행총재는 오히려 전국은행연합회장으로 영전하여 건재해 있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베네수엘라가 이렇듯 정계, 군 할 것 없이 크리스천들이 자리 잡고 있고, 묵회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믿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나라에 숨 쉬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번 집회도 주정부의 실력자들과 묵회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준비

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그저 단에 그냥 서계셨다고 할 만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설교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 처지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했다. 체육관 바닥과 상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봉쇄되어 있었지만, 안내원들은 그 틈을 넘어 요동하는 성도들을 단으로 끌어올렸다. 단상은 정말 웅신할 틈이 없었다. 어떻게든 목사님과 더치해보려는 성도들, 요동하여 끌어올려오는 성도들,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하늘의 불이 떨어져 이 도시를 성령으로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



묵회 집사와 여인이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른다



가르시아 주지사(왼쪽)와 에드가르 은행연합회장(오른쪽)



가르시아 주지사(왼쪽)와 에드가르 은행연합회장(오른쪽)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복이 되는 복, 화가 되는 복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28:1~14)

저는 오늘 복이 되는 복과 화가 되는 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70년 가까이 살면서 보니까 복을 받고 그 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고 나서 그것이 되레 화가 되어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방배동 토박이입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시흥군 신통면 방배리였지요. 그러다 서울시로 편입승격이 되고, 70년대 후반쯤부터인가 방배동에 개발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농사나 짓는 것일 줄 알았는데 땅이 돈이 되고, 그것도 지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땅값이 치솟으니 땅 파서 농사지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으니 왜 안 그랬겠습니까? 생전 그렇게 큰돈을 처음 만져본 그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갈수록 돈쓰는 재미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노름을 하고, 술집에 다니고, 춤바람도 나고, 진짜 바람이 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폐가망신에 쫓박산까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건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큰 복이 쏟아지니 그게 화가 된 겁니다. 이것은 포수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투수가 공을 던진 격이고, 화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나고, 당연히 다치지요.

아답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다. 그러나 그것이 되레 화가 되어 예전에서 쫓겨나고, 인류를 죄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었

화로가 없는 불은 온 집을 태울 수 있다

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안나케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역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 말로에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느브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도 역시 그랬습니다. 준비 없이 왕이 되더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고만장하다가 자신은 살해되고,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격변기 우리나라 경제계를 잘 보십시오. 후계구도를 잘 세워 철저히 준비한 삼성이나 LG와 같은 몇몇 기업은 기업을 잘 키워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지만, 7공자니 어찌니 하며 복에 힘이나 주고, 즐기고 놀기만 한 자들을 후계자로 세운 기업은 그들이 다 물 많아 먹어 버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복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실 겁니다. 어떻게 복 받을 틈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 최고의 축복장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카도 들어가도 복, 자녀가 복, 토지가 복, 우양이 복, 떡 반죽 그릇이 복, 적군이 일곱 길로 도망가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축복장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다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손에 잡히는 복입니다. 손에 잡히는 복입니다.



다 . 반면 마태복음 5장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외에 주리고, 화평하고, 청결해지는 복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두 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복 중 어떤 것을 먼저 받아야 하는가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먼저 받으면 복이 화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먼저 받으면 복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 낭패를 당한 방배동 농부 꼴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복부터 받고 눈에 보이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과 강건한 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나무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넓고 깊게

뿌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심으면 금방 속 크는데, 그 나무는 태풍 한 번 불면 다 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심으면 3년 동안 썩어 안 납니다. 그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썩만 나면 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거듭나는 복, 속사람이 변화되는 복인 마태복음 5장의 복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업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복을 받아야 이 복이 유지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뿌리 없는

나무 처럼 무너지고, 그 나무 밑에 깔려 죽게 됩니다.

살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내 육체도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의 복을 받은 자는 보이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 나무의 잎이 다 떨어져도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보이지 않는 복을 이미 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왔다 갔다 해도 끄떡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천국까지 넉넉히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선전들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속사람이 변하는 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받았기에 눈에 보이는 복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부득불 말씀드리자면, 저도 오늘날 누리는 복은 보이지 않는 복 위에 세워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핍박과 환난을 통해 인내를, 온유와 겸손을, 청결한 마음과 화평의 마음을 배웠기에 오늘날 세계를 교구화 삼는 복과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았습다. 그래서 이 복이 지속되고, 더는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에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가끔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 면에서나 인격 면에서나 정말 영망인 사람인데, 복을 받는 것을 보면요, 목사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요. 그 사람 보면 그 복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더는 그 복이 화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당연히 복 받을 사람이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뿐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그런 자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받은 복을 잘 누리고 살지요. 저 우리 성도 모두가 복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도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 받을 준비를 먼저 합시다.

일 년이란 시간은 충분히 마태복음 5장의 복도 받고, 신명기 28장의 복도 받을 만한 넉넉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열려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세사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부터 실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지 않고는 못 배길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분명 눈에 보이는 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2014년 새해를 맞아 목사님들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연재 기획코너를 마련했다

복 있는 자란?



2014년의 표어는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받는 양의 그룹에 설 것인가, 저주를 받는 염소의 그룹에 설 것인가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주님만의 옷을 입고 다니시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아주 잘 대접할 것입니다. 빛이라도 내서 팔이죠. 그러나 주님이 남루한 거지의

옷을 입고 다니시며, 자신의 정체를 말솜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억눌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의 표준과 근거"라는 표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막연한 하나님만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만한 매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는 오해하며 살아온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양의 자리에 앉게 될 사람들인데, 그들의 오해는 자신들이 매우 인간적인 자

세로 살았을 뿐, 그게 주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았을 때 동정심이 생겨 먹던 것을 좀 나누어 주었을 뿐이고,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옷 하나를 걸쳐 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고, 옥에 갇힌 이를 보면 찾아가서 따뜻한 눈길 한번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언제나 미안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엄청나게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똑같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말이죠.

또 한 그룹은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도 만났고, 병든 사람도, 옥에 갇힌 사람도, 헐벗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돕는 것은 국가나 사회사업가들이 할 일이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했고 돌보는 일에 태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겠지요.

그도 아니라면 그런 문제는 순전히 게으르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고, 그들을 달랠어진 사람쯤으로 방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들은 주님 앞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행동이 나에게 하지 않은 비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 이해와 연민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느 사람은 사회사업가처럼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연민(compassion)이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2014년, 우리도 불우한 이웃에 대해 사랑과 동정, 연민의 정을 가지고 실천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양의 무리가 되도록 합시다.

배방 예수중심교회 임택환 목사

복도 심어야 납니다



여러분은 2013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역시 지난해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조심스럽게 기도 합니다.

2014년, '복 있는 사람이 되자'는 새해의 비전을 받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고린도후서 9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연보는 헬라어로 '복'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왕이 궁전에서 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꼭 숙이고는 그저 손만 내밀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거지에게 말하기를 "네

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황당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강냉이 다섯 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것을 받더니 웃으면서 옆에 있던 신하에게 "저 거지에게 강냉이 일말만 금덩이 다섯 개만 꺼내서 주어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금덩이 다섯 개를 받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돌아가는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왕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 거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강냉이를 통째로 드릴걸!" 성경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심어야 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적뿐입니다.

또한 심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고(고후9:7), 첫 열매(잠3:9)와 심일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말3:10).

경제 용어 중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좀과 동록이 없으며, 도적이 없어서 실패하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러했지요. 땅은 속이지 않는다고요. 현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심는 것임을 아세요. 땅에 씨를 뿌리면서 땅에게 기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연보가 복입니다. 2014년, 복 있는 자들이 되려면, 먼저 복을 심읍시다.

호주 예수중심교회 김광강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

::To Be Succeed::

국가나 기업, 각 개인은 저마다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 사항을 가진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 그리고 세부 목표 사항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축구선수 박지성은 사실 축구선수로서 적합한 체격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다. 180센티가 채 되지 않는 키에 왜소한 체구, 그리고 평발까지.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따지면 세계적 인 선수는 고사하고 국내에서조차 이름을 날리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를 이끈 것은 눈에 보이는 불리한 체격 조건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간절한 '꿈'이었다. 간절하고도 확고한 소망은 그로 하여금 밤이 세도록 개인 연습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무릎을 다쳐 경기를 뛸 수 없었을 때에도 철저한 재활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몇 달

이나 빨리 재기할 수 있었다. 외국에서 활동하던 초창기 시절, 엔트리에서 탈락했을 때 그는 감독을 원망하며 팀을 떠나기보다는 실력을 키워 끝내 안팎으로 인정받는 길을 택했다. 분명한 목적의식에 철저한 실행력까지 갖춘 그는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구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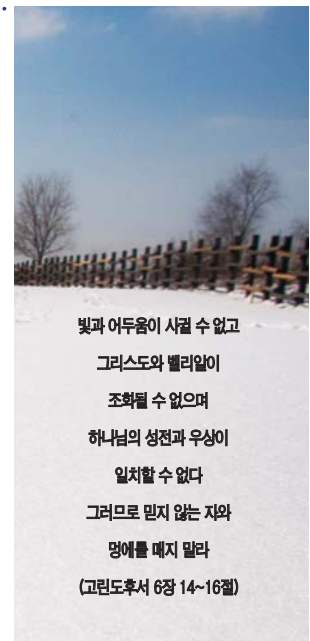
성경의 인물들도 다르지 않다. 고국의 멸망을 안타까워한 느헤미야는 철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고(느3:1~6:15),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목적의식이 네 친구로 하여금 남의 집 지붕까지 뚫는 획기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었다(막2:1~12).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참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반드시 딸을 고쳐야겠다는 목적 때문이었으며(막7:24~30), 최고의 학식과 가문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때를

맞고 옥에 갇히며 풍랑을 만나는 등의 고초를 감내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빌3:4~14). 이들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고달프고, 어찌 보면 가련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라. 결과는 목적의 성취이고 기쁨이며, 환희와 영광이다.

2014년 새해가 밝았다. 내 삶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자. 그리고 세밀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힘과 능력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를 철저하게 실행하자. 그리하면 내 영·혼·육을 기쁨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빛과 어두움이 사귄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16절)



가르시아 가르시아(Garcia Cameiro, 61세).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수도 카라카스(Caracas)에 가장 인접한 바르가스(Vargas) 주의 현직 주지사이며 차베스(Chavez) 전 대통령의 혁명동지로서 육군대장, 참모총장, 국방장관, 복지부장관 등 군 및 정부 요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항상 어느 집회에 가든 가장 주목 받게 되는 인물이 있다. 이번 집회의 경우 가르시아 주지사가 바로 그 인물인데, 그는 공항부터 직접 VIP영접으로 목사님을 모셨고, 주지사 집무실 및 공관으로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초치하여 정성스런 대접으로 맞아주었다. 그는 정말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있었다. 통상 권력자들의 집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목사님의 강제가 이어지고 그 권력자를 위한 목사님의 기도로 끝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르시아 주지사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는 마치 부흥회장을 방불케 하였다. 선진기술 및 자원을 유지하고,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얻으라는 목사님의 국가 지도자를 위한 강제가 있었고, 비화기가 들어오고 배가 들어오며 남미 전체로 육로가 이어진 이 도시가 매우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루이스(Luis) 목사의 발언이 있은 후, 목사님은 가르시아 주지사를 축복하기 위해 그의 머리에 손

소리가 높아지더니 갑자기 목사님 옆에 앉았던 카를로스(Carlos) 목사가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급반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며 목사님은 모든 참석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한 목회자는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였다. 주지사 집무실은 높아지는 방언소리와 울며 기도하는 소리에 문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며 베네수엘라가 심상치 않음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나라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튿날 낮 12시, 집회를 앞두고 가르시아 주지사는 목사님을 주지사 공관으로 초청하였다. 그 자리에는 에드가르(Edgar) 전국은행연합회장도 부인과 함께 찾아와 반가운 해후를 하였다. 참 재미있는 것은 가르시아 주지사와 에드가르 회장의 관계였다. 가르시아 주지사가 사관학교장을 할 때, 에드가르는 학생이었고, 주지사가 4성 장군 시절, 에드가르 회장은 그의 경비대장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어쩐지 에드가르 회장이 주지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경직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였다. 목사님은 처음 베네수엘라 방문했던 2008년, 볼리바르(Volibar) 광장을 찾았던 단상을 이야기하시며, 대한민국이

바르가스 주는 이제 목사님의 집입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13:20)**

1973년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를 초청하여 여의도 광장에서 기독교인 100만 명이 모이는 대집회를 한 후에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주지사를 비롯하여 여기 모인 권력, 재력, 지력, 영력 있는 자들이 뜻만 모은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살리려는 여러분의 충정을 심본 이해하고 나도 이 나라를 살리려 왔습니다. 내가 멕시코(Mexico)를 10년 드나들며 그 나라를 위해 축복했더니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나라도 이제 내가 발을 들여놓은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볼리바르 광장의 100만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뜻을 모아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가르시아 주지사, 에드가르 연합회장 등 권력자들과 루이스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목사님이 차로 이동할 때마다 경찰 사이드카를 붙여서 무신호 통과로 길을 열어주었고, 집회면 집회, 세미나면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여 은혜를 받는 모습이였다. 특히 세미나를 시작할 무렵, 분위기가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목사님이 마이크를 던지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 앞에서는 강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세미나나 집회 때마다오는 비서진들을 손사래로 물리치

며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집회 마지막 날, 도시를 살린 공로를 인정하여 주정부가 수여하는 최고훈장을 목사님 목에 걸어드리며, 바르가스 주와 모든 주민들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환영하고, 목사님이 이 주의 어느 도시를 방문하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영접할 것을 약속하였다. “바르가스 주는 이제 목사님의 집입니다.”

가르시아 주지사의 이 한마디에 참석한 모든 회중이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며 환호성으로 화답하였다. 이번 베네수엘라 방문의 최고 절정의 장면이였다. 그는 목사님을 만나 소감을 피력하며 세미나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생각을 바꿔야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이제 적극 실행에 옮겨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 주지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를 기억하게 하는 건, 첫 만찬에서 목사님께 드린 선물이었다. 대부분 그 나라의 특산물이나 기념품을 선물하는 게 상례인데, 가르시아 주지사는 특이하게도 스페인어 성경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과묵하고 표정 변화가 많지 않은 그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있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을 한해 우리 교단의 표어는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다면 변화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잠시 잠깐 변화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결단과 결심을 했지만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총회장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평범하던 분이 세계

복은 만남을 통해 이뤄집니다

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 또한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예수도 만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으로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며 야심을 키웠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 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만난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열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극히 담대하여져서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사는 소를 몰아 쟁길질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를 만난 이후에 엘리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청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평상시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저를 보면 인사만 하고는 항상 피하여 가곤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올 신년축복성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날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말씀이 다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으며, 그 만남을 통하여 삶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를 피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만남이 곧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 목사님과 같은 분의 제자가 된 것에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하여 저는 많은 변화를 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단의 성도님들!

올 한해 모두 복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하여 예수를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성숙한 삶을 사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신앙을 더욱 닦아 가십시오.

2014년 새해, 귀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예수중심교회 장영국 목사